

임진왜란과 이순신의 친인척 동향 연구*

-초계변씨 · 남양홍씨 문중을 중심으로-

신 윤 호**

목 차

- I. 머리말
- II. 임진왜란기 초계변씨 인물의 활동
- III. 임진왜란 후 남양홍씨 인물의 현창활동
 - 1. 남양홍씨 문중의 이순신 현창
 - 2. 임진왜란과 해ampo 유적
- IV. 맺음말

국문초록 | 이순신은 임진왜란 당시 활약한 주요한 인물로 평가되고 있으나 그의 업적은 주변에서 활동하거나 조력한 인물들의 공로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이를 위해 이순신의 친인척으로서 함께 활동했거나 사후에 추승했던 인물들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즉, 이순신과 혼맥관계에 있었던 초계변씨와 남양홍씨 문중의 인물들이었다. 초계변씨 인물들은 이순신과 함께 활동하였으며, 남양홍씨 인물들은 이순신 사후 현창에 기여한 인물들이었다.

임진왜란 시기 초계변씨 인물들 중에서 이순신과 가까운 친인척은 변존서와 변유현이었다. 이들은 무과급제자들로서 전술에 조예가 있었으며, 이순신의 휘하에서 군관으로서 활약하였다. 가까운 친인척은 아니지만 변사안, 변덕수, 변홍달, 변희보

* 2024년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학술연구과제 지원에 의하여 작성된 논문임.

** 申允昊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연구위원 56china@hanmail.net

투고일: 2025. 11. 23. 심사완료일: 2026. 1. 5. 게재확정일: 2026. 1. 8.

DOI URL: <http://dx.doi.org/10.17792/kcs.2025.49..7>

등은 무과급제자들로서 수군으로 활동하거나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1597년 이순신이 백의중군하여 초계지역에 있을 때 많은 인물들이 찾아와 알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정의 지원이 변변치 않았음에도 이순신이 수군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인적·물적 지지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남양홍씨는 이순신 일가와 누대에 걸쳐 관계되어 있었다. 이순신의 아내 상주방씨의 외가이자 그의 사위는 홍가신의 아들 홍비였다. 홍비의 아들인 홍우기는 태당 이식이 쓴 諡狀을 가지고 金堉에게 가서 신도비문을 요청하였으며, 이 비문으로 1693년 이순신의 증손인 이광진이 총청수사로 부임하면서 이순신 묘역 입구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또한 이 비문은 『국조인물고』에 실려 편찬되었다. 이 『국조인물고』는 그 후로도 여러 인물지의 참고자료가 되어 여러 형태로 출판되어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전승과 더불어 위인으로서 한 층 격상되었다고 보여진다. 특히, 정조의 『이충무공전서』 편찬은 그 대표적 사례이다.

홍우기는 해ampo 유적을 전승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해암(계바위) 근처에 이순신의 별채가 있었고 홍우기가 상속받아 살았다고 한다. 해암은 바다와 통하는 포구에 있으며, 이순신이 모친과 소식을 주고받는 창구였다. 또한 1593년 아산의 어머니를 전라좌수영 인근인 고읍천으로 모실 때 아산 해ampo에서 배를 띄워 서해안을 통해 이동하였으며, 1597년 백의중군시 모친이 고읍천에서 아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 위에서 사망하여 해ampo에서 모친상을 치렀던 사연이 엮힌 장소였다. 즉, 해암은 이순신 효성의 상징이었다.

핵심어 | 임진왜란, 이순신, 초계변씨, 남양홍씨, 해ampo

I. 머리말

임진왜란은 동아시아 국제전쟁으로서 조선 개국 이후 최대의 위기였다. 일본군 15만여 명의 대규모 침략에 다양한 계층의 많은 백성들이 저항하였다. 이 가운데 이순신은 수군을 이끌었던 인물로서 해상에서 펼쳐진 수십 차례의 전투에서 승리하였다. 이로 인해 이순신은 시대적 상황에 따라 여러 형태로 현창되었다. 예컨대, 정조대에는 문무를 겸장한 ‘충신’의 본으로 삼아 『이충무공전서』가 왕명으로 편찬되었으며, 일제에 의해 국권이 침탈되던 때에는 민족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한 신채호의 ‘조선제일위인 이순신’, 국가

회복의 관점에서 최남선 『임진란』, 강효석의 『동국전란사』 등이 출간되었다.1) 해방 후부터 군부독재시절인 1980년을 전후한 시기까지는 이순신을 성용화하는 저서가 출간되었다.2) 1980년대 이후로는 점차 이순신 개인 위주의 연구에서 벗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3) 대체로 이순신을 위인으로 추앙하는 분위기에서 그의 전략과 리더십에 관한 연구성과는 무수히 많으나, 그의 휘하에서, 또는 주변에서 조력했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이순신의 막하 인물 및 그를 도왔던 인물들에 대한 연구가 있으며4), 그의 가족들의 활동에 대한 연구도 있다.5) 또 이순신의 사돈인 상주(온양)방씨 문중의 인물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다.6) 특히, 정진술은 이순신의 본가, 외가, 처가의 인물들을 총망라하여 개별적인 분석을 하였다. 이는 이순신의 주변 인적 네트워크를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사료된다.7)

-
- 1) 신채호, 「朝鮮第一偉人 李舜臣」(『대한매일신보』에 5월~8월 100일간 연재); 崔南善, 『壬辰亂』, 東明社, 1931; 姜敷錫, 『東國戰亂史』, 한양서원, 1927.
 - 2) 李殷相, 『李忠武公一代記』, 국학도서출판부, 1946; 李允宰, 『聖雄李舜臣』, 통문관, 1946; 趙仁福, 『李舜臣戰史研究』, 명양사, 1964; 崔碩男, 『韓國水軍史研究』, 명양사, 1965; 趙成都, 『忠武公李舜臣』, 동원사, 1976.
 - 3) 김경록, 「임진왜란 연구의 회고와 제안」, 『軍史』 100,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 2016, 67-118쪽.
 - 4)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李舜臣 幕下人物의 활동」, 『역사와 경계』 52, 부산경남사학회, 2004, 1-45쪽; 황병성, 「이순신 막하인물들의 의리론과 창의 - 호남 거주의 의병막하들을 중심으로」, 『호남학』 5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337-365쪽; 정진술, 「이순신을 도운 전라좌·우수영 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 23,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5, 1-48쪽; 제장명, 「이순신을 도운 경상우수영·충청수영 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 23,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5, 1-77쪽.
 - 5) 신윤희, 「임진왜란중 이순신일가의 動態와 이순신의 孝義」, 『이순신연구논총』 8,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7, 1-31쪽.
 - 6) 방성석, 「임진왜란 극복과 온양방씨의 역할에 관한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25,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6, 1-60쪽; 『임진왜란 전후 온양방씨 일문의 구국 활동』(임진왜란 431주년 온양방씨 제1회 학술대회), 2013.

본 연구는 위 연구의 기반 위에 이순신 친인척의 활동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치지 않고 이순신의 활동과 연계하여 직·간접적으로 조력했던 부분을 상고해봄으로써 인간관계 속에서 이순신 저력의 근간을 밝히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 친인척의 활동은 이순신에 대한 절대적 신뢰를 기반으로 이루어졌음을 생각해 볼 때, 그 결속력은 타인으로서 조력했던 것과 큰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많은 조력자들이 있었으나 이순신과 직접적으로 관계된 문중 인물들의 동향을 파악함으로써 집단 조력의 실마리를 찾아보고자 하였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이순신의 업적은 그가 홀로 이룬 것이 아님을 상식적으로 알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누가 그와 함께 활동했는지에 대해 쉽게 떠올리기 어렵다. 또 이순신의 업적은 후대에 추승·현창 사업으로 인한 기억의 전승이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초계변씨 문중 인물의 이순신 조력 부분과 남양홍씨 문중 인물의 이순신 현창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첫째, 초계변씨 문중과 이순신 가문의 관계를 살펴보고 초계변씨 인물들의 활동을 살펴볼 것이다. 초계변씨 가문은 이순신의 가문과 여러 대에 걸쳐 혼맥관계에 있었는데, 조모의 가문이자 모친의 가문이며, 매제의 가문이기도 하였다. 따라서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과 함께 활동하였거나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초계변씨 인물들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둘째, 남양홍씨 문중과 이순신의 관계를 살펴보고 남양홍씨 인물들의 이순신 현창활동에 대하여 살펴볼 것이다. 남양홍씨 인물들은 임진왜란 시기의 이순신 활동과 관계 유적에 대한 현창 및 보전에 기여한 내용으로서 이순신 사후 그에 대한 현양활동과 이순신의 모친 봉양에 관한 유적인 해암(계바위)에 대하여 알아볼 것이다. 이순신은 남양홍씨 문중과 사돈관계에

7) 정진술, 「임진왜란 시기 李舜臣家 인물들의 行蹟」, 『이순신연구논총』 4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4, 41-92쪽.

있으며, 그의 외손은 이순신에 대한 현양활동을 하였다. 또한 해암 유적은 이순신 모친에 대한 사연이 얽힌 곳으로서 그의 효성을 상징하는 곳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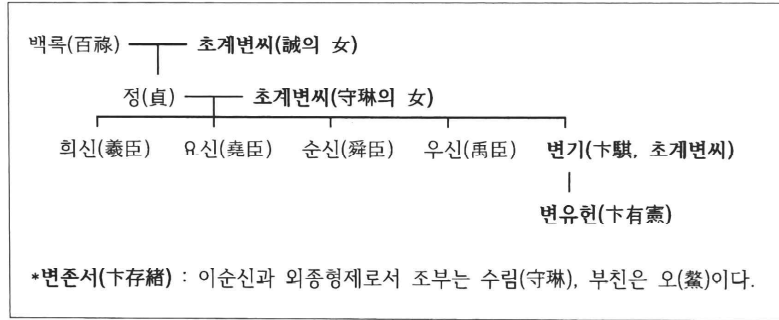
이상의 내용을 살펴봄으로써 이순신의 업적이 그의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 인물들의 조력활동과 함께 설명되어야 함을 논하고자 한다. 친인척이 이순신을 돕는 것은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그 실체가 잘 드러나지 않으므로 이순신의 큰 업적을 설명할 근거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친인척 관계 인물들의 존재를 파악하는 것 만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며, 가능하면 그들의 활동과 이순신에게 연관된 내용을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고의 내용은 그 일부를 채우는 역할을 하기 위한 것이다.

Ⅱ. 임진왜란기 초계변씨 인물의 활동

이순신의 가문과 초계변씨의 관계는 매우 긴밀하다. <그림 1>과 같이 이순신의 조부 百錄, 부친 貞은 초계변씨와 혼인하였으며, 정의 사위는 卞驥로서 초계변씨와 3대에 걸쳐 혼맥관계를 맺고 있었다.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의 휘하에서, 또는 그 주변에서 활동하였던 여러 인물들 중에서 초계변씨 인물들이 있었다. 이들은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음이 난중일기에 잘 나타나 있으며, 무과 급제자들의 경우 전술을 논의하거나 군사를 동원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우선 이순신과 가까운 인척이었던 변존서와 변유현에 대하여 살펴보자.

〈그림 1〉 이순신의 가계와 초계변씨 인물



※『이충무공전서』; 『草溪卞氏族譜』(1742刊); 『草溪密陽卞氏大同譜』(丁卯 1987)

卞存緒(1561~?)는 卞守琳의 손자이며, 卞鰲의 아들로서 자는 興伯이며 右尹公派 17세손이다. 1583년 무과에 급제하였다.⁸⁾ 이순신과는 외종형제다 (그림 1).

卞有憲(1564~?)은 卞駙의 아들로서 자는 士則이며 提學公派 15세손이다. 1591년 무과에 급제하였다.⁹⁾ 이순신의 甥姪이다(그림 1).

변존서는 임진왜란 이전부터 전라좌수사 이순신의 帶率軍官으로 있었다.¹⁰⁾ 1차 출전하여 옥포해전에서는 돌격장 이언량과, 전봉사 김효성과 함께 왜대선 1척을 쳐부셨다. 돌격장과 함께 싸운 것으로 보아 선봉에서 싸웠음을 알 수 있으며, 이어진 합포해전에서도 왜대선 1척을 분멸하였다. 2차 출전에서도 ‘분연히 몸을 돌보지 않고 끝까지 역전하였다’고 평가를 받은 인물 중 한 사람으로 언급되며 제1의 공로자로 보고되었다.¹¹⁾ 변존서는 임진왜란 이전인 1592년 2월부터 이순신이 백의종군 하던 1597년 7월까지 『난중일기』

8) 『萬曆十一年癸未九月初三日別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貴古朝26-28-6]); 『초계밀양변씨대동보』 권3(丁卯 1987).

9) 『辛卯別試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73]); 『초계밀양변씨대동보』 권1.

10) 『난중일기』, 1592년 2월 8일.

11) 『이충무공전서』 권2, 狀啓 「옥포파왜병장」·「당포파왜병장」.

에 지속적으로 등장한다.¹²⁾ 즉, 임진왜란 기간 내내 이순신과 함께 활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순신이 백의종군을 명받고 남하하던 중 아산에서 모친상을 당하여 장례를 치르던 당시에도 변존서는 이순신의 아들 조카들과 함께 아산에 있었으며, 이순신을 압송하던 금부도사를 자신의 집에 며칠 유숙하도록 하였다.¹³⁾ 이후 권율의 도원수부 인근에 있을 때도 이순신과 함께 활동하였다.¹⁴⁾

변유현은 1593년부터 본격적인 활동이 확인된다. 이순신의 아들 조카들과 함께 활동하였는데, 한산도에서 본영을 왕래하며 적에 관한 동향을 보고하였다.¹⁵⁾ 이순신이 백의종군 시 그 모친 초계변씨의 장례를 돕고 아산의 가솔들을 돌보기도 했다.¹⁶⁾ 변존서와 변유현은 무과 급제자로서 이순신과 전술 및 적군의 동태에 관하여 논의하기도 하였다.¹⁷⁾

1594년 2월, 강화교섭 진행중에도 일본군선 수습 척이 고성 춘원포, 소스포 등지에 출몰하고 있었다.¹⁸⁾ 1594년 2월 1일 ‘삼도의 수군을 이끌고 적을 무찌르라’는 임금의 명령이 하달된 상황이었지만 수군의 진영에서는 피역현상이 잇따르고 있었다. 이에 지속적으로 피역자 및 도피자를 붙잡아 오도록 조치하였으며,¹⁹⁾ 이에 대하여 수군을 점고하기 위해 군관들을 파견하였다.

12) 『난중일기』 1592년 2월 8일 / 1593년 5월 17일, 6월 12일, 7월 5일, 8월 29일, 9월 1일 / 1594년 2월 8·14·19일, 3월 25일, 6월 19일 / 1595년 2월 11일, 4월 11일, 11월 4·22일 / 1596년 1월 17일 / 1597년 4월 19일, 6월 11·17·29일, 7월 5·9·10일.

13) 위의 책, 1597년 4월 7~10일·19일; 4월 7~10일의 일기에는 변존서의 호인 興伯으로 기록하였다.

14) 위의 책, 1597년 6월 11·17·29일, 7월 5·9·10일.

15) 위의 책, 1593년 5월 29·30일, 6월 19일, 7월 5일, 8월 29일, 9월 1일.

16) 위의 책, 1597년 4월 19일, 5월 2일, 7월 9~10일.

17) 위의 책, 1593년 5월 30일.

18) 위의 책, 1594년 2월 7·13일.

19) 위의 책, 1594년 2월 1·7일.

경상도 남해·하동·사천·고성 등지에는 송희립·변존서·류황·노윤발 등을, 우도에는 변유헌·나대용 등을 점고하러 내어 보냈다.²⁰⁾

이를 통해 변존서와 변유헌에 대한 이순신의 신임이 두터웠음을 알 수 있다. 이 두 인물은 전쟁의 장기화로 피역현상 및 전염병으로 수군의 존립이 가장 어려웠던 시기에 활동하였다. 1594년 1월~4월, 사망자 및 환자가 5천 6백여 명에 이르렀던²¹⁾ 절박한 시기에 군사들을 위무하고 전열의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변존서와 변유헌은 친인척으로서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조력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과 가까운 친인척 관계는 아니지만 초계변씨 문중이 이순신의 외가 이자 사돈 관계에 있는 등 누대에 걸쳐 이어진 혼맥으로 이순신과 밀접한 관계에 있으므로 『난중일기』에 등장하는 초계변씨의 여러 인물들을 살펴보자.

변사안의 경우는 1594년경, 수군으로 활동하였던 정황이 확인되어 이를 알아보았으며, 나머지는 이순신이 백의종군시 권율의 원수부 인근인 초계지역에 머물고 있던 1597년 6월~7월 중에 많은 초계변씨 인물들이 찾아와 알현하였다. <그림 2>의 가계도는 『난중일기』에 등장한 인물들을 초계변씨 족보에서 확인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20) 위의 책, 1594년 2월 14일.

21) 1594년 1월~4월 중 수군의 전염병 피해상황(「請罪關防諸將狀」, 『임진장초』 狀73.)

	사망자	환자
전라좌수군	606	1,373
전라우수군	603	1,878
경상우수군	344	222
충청수군	351	286
총계	1,904	3,759

변사안이 수군에서 활동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변사안이 장문포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배경을 보자면, 그해 3월 당항포해전에서 떨어진 수군의 위세에 의한 것이었다. 변사안보다 약 1개월 전인 4월 17일, 김응지 등 16인이 장문포에서 배를 타고 탈출하여 한산진으로 인도되었다. 이들을 공초한 내용 중에 '수군 300여 척이 진해와 고성으로 향하여 위의 적선 등을 당과분멸하였으므로 그 군사의 위세를 겁내어 장문포에 진친 적들이 허둥지둥 넘어지며 무기와 짐짝, 저희 본국의 戰馬들을 그 배에 만재해 놓은 채 혹 산골로 들어가기도 하였습니다' 하며 당항포해전에서 활약한 조선수군의 위세로 인해 일본군의 경계가 허술해진 틈을 타 도주하였다고 하였다.²³⁾

이와 같이 변사안도 탈출에 성공하여 한산진으로 왔는데, 공초를 하지 않고 도착 즉시 적진의 상황을 보고한 것으로 미루어 원래 수군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변사안을 제외하면 모두가 이순신이 초계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찾아왔는데, 『난중일기』에 의하면 1597년 6월 16일 변광조가 이순신을 찾아왔으며, 6월 19일에는 변덕기, 변덕장, 변경완, 변경남 등이, 6월 20일은 변유가 찾아왔다(그림 2). 7월 4일은 변여량, 변회보, 변사중, 변대성 등이 찾아왔는데, 이 가운데 변여량과 변회보는 벼슬을 했다고 하였다(그림 2). 7월 17일은 변대헌을 비롯한 초계 아전들이 찾아와 알현하였는데, 이순신은 이들이 어머니(초계변씨)와 족성의 같은 파 사람들로서 왔다고 하였다(그림 2). 또한 변덕수는 1597년 7월 258일에 등장하는데, 그는 右營吏로서 1583년 무과에 합격한 인물이었다(그림 2).²⁴⁾ 변홍달은 이조참판공파 17세손으로서 1589년 무과에 급제하였으며, 부친인 國幹은 충청수사, 경상우병사를 역임한

23) 위의 책, 甲午(1594) 4월 17-18일: 『이충무공전서』 권4 장계 「陳倭情狀」(狀68, 1594. 4.20.).

24) 『萬曆十一年癸未九月初三日別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 韓古朝62-28-6)].

인물이었다(그림 2).²⁵⁾ 변홍달이 도원수의 군관으로서 백의종군하던 이순신을 여러 차례 알현하였고, 칠천량의 패전소식을 전하였다.²⁶⁾

이처럼 초계변씨 인물들은 이순신의 활동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었으며,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들의 일부는 <표 1> 과 같이 공신에 책봉되었다.

<표 1> 공신에 책봉된 초계변씨 인물

공신칭호	책봉된 인물	자료명
선무원종공신 2등	변유현, 변존서, 변홍달, 변덕장, 변덕기	『선무원종공신녹권』(1605)
호성원종공신 3등	변덕수	『호성원종공신녹권』(1605)

임진왜란 종전 후 논공행상이 거론된 것은 1601년 3월, 선조의 전교가 내려지면서 수년간에 걸친 논의가 시작되었다. 약 3년여의 시간이 지난 1604년 6월 25일에 이르러 공신을 봉하였는데 한성에서 의주까지 시종 어가를 따른 인물들을 扈聖功臣으로 하고 86명을, 왜적을 친 장수들과 군사와 양곡을 주창한 사신들을 宣武功臣으로 하고 18명을, 이몽학을 토벌하여 평정한 인물은 淸難功臣으로 하고 5명을 책훈하였다.²⁷⁾ 그 후 1605년에 위 3공신에 대하여 후방 지원을 한 공로가 있는 인물들에 대하여 ‘原從’을 덧붙여 錄券을 편찬하였다. 호성원종공신은 2,475명, 선무원종공신은 9,060명, 청난원종공신은 1,000여 명을 책록하였다. 다만, 이 ‘원종공신녹권’에 활동내용은 기록하지 않았고, 1등~3등으로 구분하여 직함과 이름만 기록되어 있다.

이순신은 임진왜란 때 많은 전공을 세운 인물로 평가되고 있는데, 그 업적의 기저에는 절대적 신뢰를 바탕으로 한 조력자들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25) 『己丑四月日增廣龍虎榜目』(국사편찬위원회[MF A지수149 1]).

26) 『난중일기』 丁酉(1597) 7월 18일.

27) 『선조실록』 권175, 37년 6월 甲辰(25일).

특히, 초계변씨 가문은 이순신 가문과 여러 겹의 혼맥으로 이어져 있어 조력 인물이 더 많았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확인된 사례만 살펴보았다. 향후 더 많은 자료가 발굴되어 활동상을 소상히 밝힐 수 있기를 기대한다.

Ⅲ. 임진왜란 후 남양홍씨 인물의 현창활동

오늘날 충무공 이순신의 위상은 그의 사후 덕수이씨 가문 후손들의 현창을 통해 격상되기 시작하였다. 대표적으로 『충무공가승』(1715)을 보면, 이순신의 후손인 이홍의, 이봉상 등의 적극적인 활동의 결과물이었다. 그 내용에 이순신의 글은 소략하고 대체로 집안에 있는 문서들을 토대로 국가의 현창사업에 따라 생성된 자료와 명망 있는 인물들의 이순신 업적에 대한 題跋, 시문 등이 주를 이룬다. 숙종대에 『충무공가승』 편찬과정을 통해 이순신의 업적이 재조명되면서 결과적으로 현창활동을 하였던 후손들이 관료로 진출하는 등 명예와 특권을 누리게 되었다.²⁸⁾

특히, 정조의 『이충무공전서』(1795) 편찬은 이순신을 문무를 겸장한 완벽에 가까운 ‘충신’의 반열에 격상시키는 정책이었다. 『이충무공전서』 편찬을 시작하는 과정에서 이순신 후손들을 중심으로 충신의 후손들을 천거·등용하기 시작하였다.²⁹⁾ 이처럼 이순신 후손들의 현창활동은 이순신의 충신으로

28) 윤정, 「肅宗代 『忠武公家乘』 편찬의 경위와 정치적 함의 - 『李忠武公全集』의 원전에 대한 검토」, 『역사와 실학』 55, 역사실학회, 2014, 109-155쪽; 「영조대 이순신 사적 현창과 후손 탁용의 정치적 함의- 무신란에 따른 이념적 대책」, 『역사민속학』 62,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7-36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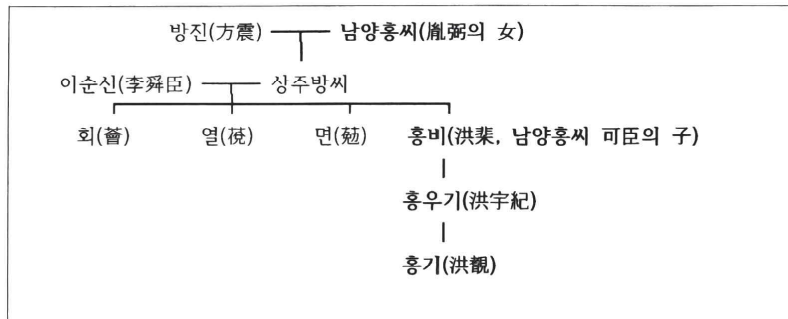
29) 신윤호, 「정조대 『李忠武公全集』 편찬과 『亂中日記』 분석」,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4,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7, 151-219쪽; 민장원, 「정조의 ‘충신’ 현창사업과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145-186쪽..

서의 업적과 기개를 제고하였으며, 그 위상이 높아질수록 후손들이 영예를 누리는 것으로 순환되었다.

이와 같은 이순신에 대한 현창사업 추진은 남양홍씨 문중의 인물 가운데에서도 있었다. 이순신 사후 임진왜란 시기 활약했던 그의 업적을 현창하고 그의 모친과 관련된 유적을 전승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 현창활동의 특성은 남양홍씨문중의 세거지인 아산지역의 유적으로 전승되었다는 점이다.

1. 남양홍씨 인물의 이순신 현창

〈그림 3〉 이순신 일가와 남양홍씨의 혼맥도



※『이충무공전서』; 『만전선생문집』

이순신의 가계는 남양홍씨 문중과 누대에 걸쳐 관계되어 있었다. 이순신의 외가인 초계변씨와도 누대에 걸쳐 혼맥관계를 형성하였으며, 부인의 외가인 남양홍씨와도 마찬가지로였다. 이순신의 장모는 將仕郎 홍윤필의 딸이며³⁰⁾, 그의 사위는 홍가신의 아들 洪斐이다(그림 3).³¹⁾ 홍가신은 임진왜란

30) 『이충무공전서』 권9 「행록」(李芬).

31) 위의 책, 권9 「행록」(李芬); 『만전선생문집』 권6 부록, 行狀(홍경신).

시기 홍주목사로 있을 때 ‘이몽학의 난’을 진압한 공로로 청난공신 1등에 책훈된 인물이다. 이순신이 선무공신 1등에 책훈된 사실과 견주어보면 사돈 관계에 있는 두 집안이 나란히 임진왜란 공신 1등을 배출한 것이다.³²⁾

홍가신은 20세가 되는 1560년 이후 서애 류성룡, 동암 이발, 류유립 등과 함께 과거 공부를 하며 교분을 쌓았다고 한다.³³⁾ 특히, 어려서부터 이순신과 가까운 사이였던 류성룡과의 교분은 이순신 가문이 홍가신 가문과 혼맥으로 이어진 연결고리가 된다고 판단되며, 홍가신과 이순신이 모두 서울에서 아산으로 이거하여 정착하였던 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홍가신이 아산으로 이거하였던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홍가신의 경제적 기반이 아산의 외가였던 점이 주요인으로 추정된다.³⁴⁾

이순신은 유년기 서울 건천동에 살면서 류성룡과 교분이 있었다. 그가 아산으로 이거하게 된 시기는 1554년 이후로 추정되며, 그 이유는 이순신의 조부인 이백록이 국상기간에 자녀를 혼인시켰던 일로 처벌받았다. 그 사실이 錄案에 등재됨으로써 자손들까지도 낙인 찍혀 벼슬길이 막히게 되었다. 이에 이순신의 부친인 李貞은 처가인 초계변씨의 경제적 기반이 있는 아산으로 이주하였다.³⁵⁾ 현재의 이순신 고택은 이순신의 부인인 상주방씨의 친정집이다. 이순신이 아산으로 이주한 후 아산에 기반을 둔 상주방씨와 혼인하였다.

32) 『선조실록』 권175, 37년 6월 甲辰(25일).

33) 조경, 「홍가신신도비명」, 『만전당홍가신선생문집』, 2006.

34) 홍가신이 서울에서 아산으로 내려온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그 계기는 어머니 홍양신씨(申允弼의 딸)의 묘소가 아산에 있음을 미루어 외가의 경제적 기반에 있다고 추정된다.(이근호, 「인조 말~숙종 초 홍우원의 정치 활동」, 『한국사학보』 67, 2017, 7-38쪽.; 『新定牙州誌』, 「고금총록」).

35) 이순신의 조부 이백록은 중종의 국상기간에 아들 貴의 혼사를 호사스럽게 했다는 이유로 적발되어 綱常罪로 廢錮되면서 자손들의 벼슬길까지 막혔으며, 후에 억울함으로 호소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자 아산으로 이주하였다.(김일환, 「이순신의 아산 낙향과 무과 수련과정」, 『이순신연구논총』 30, 순천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8, 9-39쪽.).

즉, 이순신은 외가와 처가가 모두 아산이었고, 장모는 남양홍씨(홍윤필의 딸), 사위도 남양홍씨(홍비)로서 혈연적·경제적 기반이 모두 아산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은 홍가신 가문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다.

홍가신은 1596년 홍주목사로 있으면서 ‘이몽학의 난’을 평정하였으며, 1600년 해주목사를 거쳐 1602년 한성부윤에 제수되었다. 1605년 3월 형조판서에 보임되었다가 10월 개성유수로 전임되었는데, 1606년에 사직하였다. 이후 고향 아산으로 돌아와 은거하다가 1615년 76세로 생을 마감하였다.³⁶⁾

이순신의 사위인 홍비는 아산에 거주하고 있었는데, 그의 부친인 홍가신이 아산에 정착하면서부터 세거하고 있었다. 홍비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순신 현창 및 해암포 유적 보존에 일조한 바 있었는데, 해당 자손들인 홍우기와 홍기의 활동 내용을 살펴보자(그림 3).

홍비의 아들 홍宇紀는 1633년에 태어나 1665년 溫陽庭試에서 문과 장원으로 급제하였다.³⁷⁾

홍우기는 이순신의 외손으로서 처음 이순신의 神道碑文을 요청하여 받았다. 그가 金堉(1580~1658)에게 태당 李植이 쓴 諡狀을 보이며 비문을 요청하였다. 이 비문은 김육의 『잠곡유고』에 「李統制忠武公神道碑銘」로 수록되었는데, 작성 시기는 ‘忠武’라는 시호가 1643년에 내려졌고 김육이 요청받을 당시 나이 80에 가까웠다고 했으므로 1650년대였음을 알 수 있다.³⁸⁾ 그 후 이 비문을 바탕으로 실제 신도비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吳竣(1587~1666)이 비문을 쓰고, 李正英(1616~1686)이 篆字를 썼다. 1693년 이순신의 증손 李光震(1646~1696)이 충청수사로 부임하면서 비석 건립이 완성되었으며, 이순신 묘역 입구(아산시 음봉면 고룡산로 12-38)에 위치한다.³⁹⁾ 김육이

36) 『광해군일기』 7년(1615) 6월 21일; 김기승, 「홍가신과 임진왜란 - 충청 지역 지방관이 경험한 임진왜란 전후의 조선사회」, 『역한국인물사연구』 8, 한국인물사연구회, 2007, 221-247쪽.

37) 『國朝文科榜目』 권12, 「乙巳六年溫陽庭試榜」.

38) 『潛谷遺稿』 권13, 「李統制忠武公神道碑銘」.

쓴 이 비문은 이후 『國朝人物考』에 그대로 전재하여 편찬되었다.⁴⁰⁾ 『국조인물고』는 조선 태조~숙종까지의 주요 인물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편집한 인명록으로서 이후 조선 후기의 여러 인물지에 참고가 되는 등 이순신의 업적을 현창하는 주요한 자료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⁴¹⁾

홍우기는 해암포 유적을 전승하는 데에도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아산 읍지인 『新定牙州誌』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삼서면 월미천 포구로 들어가는 곳에서 2리 즈음에 마을이 있는데 해암이라고 한다. 바위가 마치 계가 엮드린 모양인 고로 이름하였다. 이충무공의 별업(별채)이 있다. 판결사 홍우기가 이충무공의 외손자로서 상속하여 와서 살았다.⁴²⁾

해암(계바위) 근처에 이순신의 별채가 있었다는 유일한 기록이며, 이 별채에 외손자인 홍우기가 살았다는 것이다. 이 해암은 바다와 통하는 포구가 있는 곳으로서 이순신의 모친과 관련된 장소이기도 하다. 즉, 이순신의 모친이 1593년 이 해암포를 통해 해로를 따라 전라좌수영 인근으로 이거하였다. 1597년 다시 해로를 따라 아산으로 돌아왔는데, 이순신이 백의종군시 이 해암포에서 모친상을 당하였다.

39) 디지털아산문화대전 “이순신 신도비”.

40) 『國朝人物考』권54, 「李舜臣碑銘(金堦)」.

41) 『국조인물고』는 조선 태조~숙종까지의 주요 인물에 관한 사항을 항목별로 나누어 편집한 인명록으로서 정조 때 편찬된 『人物考』의 찬집을 위해 수집된 자료이다. 『인물고』에 수록된 1,817인 보다 248인이나 많은 2,065인이 수록되었다. 이후 정조 때의 『東國名賢事跡』·『海東臣鑑』, 고종 때의 『국조문헌』, 순종 때의 『국조인물지』 등의 편찬에 큰 영향을 주었다. 특히 1937년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 편찬한 『朝鮮人名辭書』에는 『인물고』와 함께 이 책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국조인물고’).

42) “三西 月美川 入浦處 二里許 有村曰蟹岩 岩如伏蟹故名 李忠武公別業在焉 判決事洪宇紀 以忠武公外孫 傳得來居焉”(『新定牙州誌』(牙山縣邑誌), 「古今摠錄」).

홍우기의 아들 洪觀(1646~?) 역시 해암리에 ‘蟹甲窩’라는 집을 짓고 살았다. 홍기는 1666년 문과에 급제하였다.⁴³⁾ ‘계딱지 집’을 의미하는 해갑와를 본인의 號로 삼았다. 아버지 홍우기가 물려받아 살던 이순신의 별채를 가리키는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이에 대한 특별한 내용 없이 홍기가 지은 집이라는 것으로 보아 별개의 집인 듯하다.⁴⁴⁾

이 해암포는 해암(계바위)이라는 독특한 자연석으로 인해 그 위치를 파악할 수 있다.⁴⁵⁾ 앞서 언급했던 이순신 모친과 관련하여 해암포 유적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자.

2. 임진왜란과 해암포 유적

1) 이순신 일가의 이주 : 아산 → 고음천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시기는 1591년 2월이었다. 이순신의 모친 초계변씨는 아산 본가에 거주하고 있으면서 전라좌수영의 이순신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지냈다. 임진왜란 발발 후에도 1년간량 연락하다가 1593년 5월 말~6월 중순 경 전라좌수영 인근 古音川⁴⁶⁾으로 이거하였다. 이 고음천은 昌原丁氏 세거지였는데 이순신 일가의 거처로 삼기 위해 문중에서 마을의 상당 부분을 제공하였던 것이다. 이곳에서 이순신의 모친 초계변씨를 비롯하여 아내 상주방씨, 아들 화·울·면, 조카 완·봉·해·분, 집안의 노비들이 머물기도

43) 『國朝文科榜目』(奎106) 丙午年(1666).

44) 金錫胄, 『息庵先生遺稿』권8, 記 「蟹甲窩記」; 『新定牙州誌』(牙山縣邑誌), 「樓亭」 「蟹甲窩 在蟹岩里」.

45) 현재 아산 해암리 계바위는 계 모양의 자연석으로 인주면 해암리 197-2번지에 소재한다.

46) 고음천, 우리말로 ‘곰내’라고도 하는 곳이며, 현재 여수시 熊川洞이다. ‘이순신 자당 기거지’가 있었는데, 창원정씨 세거지로서 이 문중에서 이순신 일가의 거처로 제공하였다(『五忠祠誌』).

하는 등 이순신 일가가 수년간 거처로 삼았던 곳이다.

이순신 일가의 이주 경로를 알 수 있는 사료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표 4〉 『난중일기』를 통해 본 초계번씨 이주(아산 → 고음천)

위치	연월일	일기 내용	비고
아산	1593.5.4	이날은 어머니 생신인데 적을 토벌하는 일 때문에 가서 축수의 잔을 올리지 못하니 평생의 한이 되겠다.	
	1593.5.18	가노 목년이 해포(해암포) 로부터 온 편에 어머니가 평안하시다는 소식을 듣고, 곧 답장을 써서 돌려보내면서 미역 다섯 동을 고향집에 보냈다.	
아산 혹은 고음천	1593.6.1	아침에 탐후선이 들어오고 어머니 편지 또한 같이 왔는데, 평안하시다 하니 다행이다.	
고음천	1593.6.19	붕과 유현 두 조카를 본영으로 보내어 어머니의 안부를 살펴오게 하였다.	
	1594.1.11	아침에 어머니를 뵙기 위해 배에 올라 순풍을 타고 곧바로 고음천에 도착했다. 남의갈 윤사행·조카 붕과 함께 갔었다. 어머니께 나아가 뵈니 아직 주무시고 계시어 일어나지 않으셨다. 소란스런 소리에 놀라 깨어 일어나셨는데, 기운이 많이 떨어져 사실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하니 그저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다. 그래도 말씀하시는데 틀린 것이 없었다. 왜적을 치는 일이 급하여 오래 머물지 못하였다.	
	1594.5.2	새벽에 장남 회가 여종들과 함께 어머니 생신상 차려 올릴 일로 본영에 돌아갔다.	
	1595.5.4	오늘은 어머니의 생신날이다. 몸소 나아가	

		잔을 올리지 못하고 홀로 먼 바다에 앉았으니 이 회포를 어찌 다 말하랴.	
	1595.5.8	아들의 편지가 왔는데 초나흔날 중 춘세가 실수로 불을 내서 마을집 10여 채가 탔으나 어머니 계신 집에는 미치지 않았다고 하니 이것만은 다행이다.	이순신 일가의 거주지 규모가 상당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2) 이순신 일가의 이주 : **고음천 → 아산**

이순신이 파직되고 백의종군을 명받아 1597년 4월 1일 출옥 후 아산 본가를 향하였다. 이때 이순신의 모친은 고음천에서 뱃길을 이용해 아산 본가로 돌아오고 있었다. 이순신이 본가에 도착한 후 어머니를 맞이한 날은 4월 13일이였다. 그러나 이미 모친은 해로상에서 사망한 상태에서 해암(계바위)에 도착한 것이였다. 배 위에 모신 채로 입관하고 상복을 준비하는 등 상치를 준비를 하였다. 16일, 배를 끌어다 중방포(현 중방리)에 옮겨 정박하고, 영구를 상여에 싣고 육로를 통해 본가로 돌아와 빈소를 차렸다. 이때 이순신의 아들들과 조카들, 그리고 앞서 살펴봤던 변존서와 변유현도 이 상황을 함께 하였다.

〈표 5〉 『난중일기』를 통해 본 초계변씨 이주(고음천 → 아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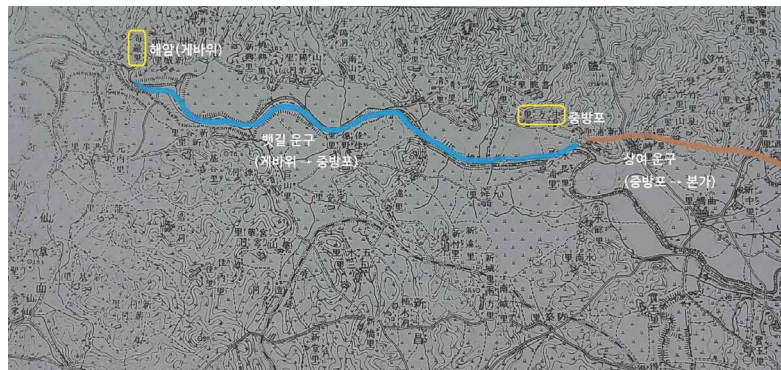
위치	연월일	일기 내용	비고
뱃길 이동	1597.4.11	새벽에 꿈이 몹시 산란하여 이루 말할 수 없었다. ... 병드신 어머니를 생각하며 눈물 흘러내리는 것도 몰랐다. 종을 보내서 어머니의 안후를 알아오게 하였다.	-4월 1일, 한성에서 출옥 후 아산으로 내려옴 -모친 초계변씨는 고음천에서 배를 타고 아산으로 오던 중임
	1597.4.12	중 태문이 안홍량으로부터 들어와 편지를 전하는데, 어머니의 근력은 아주 쇠약하시나 초 아흐렛 무렵 무사히 안홍에 닿았다고 한다. 범성포에 이르러 자고 있을 때 닳이	

		풀어져 끌려 떠내려가서 옛세만에 서로 떨어졌다가 다시 만났다고 한다. 아들 울을 먼저 바닷가로 보냈다.	
해ampo	1597.4.13	일찍 아침을 먹고 어머니를 마중하려고 바닷가로 가는 길에 홍찰방 집에 잠깐 들러 이야기하는 동안, 울이 종 애수를 들여보내어 말하기를 “이직 배오는 소식이 없다”고 했다. … 조금 있다가 종 순화가 바닷가의 배에서 와 어머니의 부고를 전한다. 뛰쳐나아가 뛰며 등그니 하늘에 뜬 해조차 김잡하다. 곧바로 해ampo로 달려가니 배가 벌써 와있었다. 길에서 바라보는 사람의 가슴이 미어지는 슬픔을 어찌 다 적을 수 있으랴.	-해ampo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맞이함 -다음 날(14일)에 적음
	1597.4.14	홍찰방 이별좌 등이 들어와서 곡하고 관을 짰는데, 관은 본영(전라좌수영)으로부터 준비해가지고 온 것으로서 조금도 흠할 데가 없다고 한다.	본영에서 관을 짜 보낸 것은 이미 초계변씨의 임종을 준비한 것으로 보임
	1597.4.15	늦게 입관했다. 친숙한 벗 오중수가 모든 것을 정성껏 해주니 뼈가 가루가 되어도 잊기 어렵다. 관에 대해서는 다른 유감이 없으니 이것만은 다행이다. 천안원(천안군수)이 들어와서 행상을 준비하고 전경복이 연일 진심으로 상복 만드는 일들을 돌봐주니 슬프고 감사한 말을 어찌 다 하랴.	
중방포 분가	1597.4.16	배를 끌어 中方浦에 옮겨 대어 영구를 상여에 싣고 집으로 돌아왔다. 마을을 바다보면 찢어지는 아픔이야 어떻게 다 말하랴. 집에 이르러 빈소를 차렸다.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고 나는 맥이 다 빠진데다가 남쪽 길이 또한 급박하니 부르짖으며 울었다. 다만 어서 죽기를 기다릴 따름이다. 천안이 돌아갔다.	뱃길 운구 (계바위→중방포) 상여 운구 (중방포→분가)
분가	1597.4.17	금부도사의 서리 이수영이 공주로부터 와	

		서 어서 가자고 재촉하였다.	
1597.4.18		중일 비가 왔다. 몸이 몹시 불편하여 머리를 내놓지 못하고 그저 빈소 앞에서 곡만 하다가 종 금수의 집으로 물러 나왔다. 늦게 계원들이 나 있는 곳으로 모여와서 껌을 의논하고 헤어졌다.	
1597.4.19		일찍 길을 떠나며 어머니 영 앞에 하직을 고하고 울며 부르짖었다. 어찌 하랴, 어찌 하랴, 천지간에 나같은 사정이 또 어디 있을 것이라. 어서 죽는 것만 같지 못하구나 ...	

이순신 모친 초계변씨의 운구행렬 위치를 지도에 표기하면 아래와 같다.

- 뱃길 운구(수로) : 해암(계바위) → 중방포
- 상여 운구(육로) : 중방포 → 본가



근세 한국오만분지일지형도



현대 위성지도

이 해ampo 유적은 이순신 효성의 상징이라 할 수 있다. 『난중일기』 및 체찰사 이원익에게 보낸 上書⁴⁷⁾에는 어머니를 사모하는 마음이 잘 나타나 있으며, 어머니의 소식을 손꼽아 기다리는 등 늘 근심하고 있음이 곳곳에 기록되어 있어 그의 효심이 남다름을 알 수 있다. 해암은 이순신이 전라좌수사로 부임한 후 전라좌수영으로부터 아산 본가에 계신 어머니와 소식을 주고받는 소통의 창구였다.

1597년 고음천(여수)에서 아산 본가로 돌아올 때 이미 사망한 채 해ampo에 도착하였다. 본영(전라좌수영)에서 관을 짜서 보낸 것은 배를 타고 출발할 즈음부터 임종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준비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해ampo에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배에 모신 채로 초상을 치르고 입관하였다. 뱃길로 해암(개바위)포에서 중방포까지 운구하였으며, 중방포에서 본가까지 상여로 운구하였다.

47) 『이충무공전서』 권1 雜著 「上體察使完平李公元翼書」.

이순신은 삼도수군통제사에서 파직되고 서울로 압송된 후 백의종군을 명받고 풀려났다. 합천 도원수부로 가던 길에 어머니를 뵙기 위해 아산에 들렀던 것인데, 여기서 돌아가신 어머니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순신은 뛰쳐나가 넘어져 구르며, 해조차 캄캄하다고 할 정도로 큰 충격에 빠졌다. 그날의 일기도 다음날 쓴 것이었다. 이순신의 고난은 삭탈관직이 아니라 모친상을 당한 것이었다고 볼 수 있다. 도원수부로 가기 위해 금부도사가 재촉하므로 슬퍼할 시간도 많지 않았다. 6일 만에 떠나야 했던 슬픔이 일기의 짧은 글귀에서도 느껴진다.

어머니를 아산 본가에서 전라좌수영 인근 고읍천으로 모셔올 때 해암포에서 출항하여왔으며, 1597년 아산 본가로 돌아올 때도 배를 타고 해암포로 도착하였다. 해암(계마위)은 배가 출항하고 도착하였던 포구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주는 역할을 한다.

IV. 맺음말

이순신은 임진왜란 해전에서 연승한 인물로서 선조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국가회복의 의지를 북돋았으며, 해상에서 만류는 일본수군을 활동을 제압하였다. 그의 업적은 자신의 행위와 더불어 그 주변에서 활동하거나 조력한 인물들의 공로를 함께 비추어 보았을 때 신화가 아닌 납득할 만한 한편의 역사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앞서 서술한 본문은 이러한 취지로 이순신 주변에서 활동했거나 사후에 추송했던 인물들을 살펴본 것이다. 그 인물들은 이순신과 혼맥관계에 있었던 초계변씨와 남양홍씨 문중의 인물들이었다.

임진왜란 시기 초계변씨 인물들 중에서 이순신과 가까운 친인척은 변존서와 변유현이었다. 이들은 무과급제자들로서 전장에서 작전을 세우거나 군사를 정비하는 실무 군관이었으며, 이순신의 휘하에서 활약하였다. 가까운

친인척은 아니지만 변사안, 변덕수, 변홍달, 변회보 등은 무과급제자들로서 수군으로 활동하거나 관직에 진출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 1597년 이순신이 백의종군하여 초계지역에 있을 때 많은 인물들이 찾아와 알현하였다. 이러한 사실은 조정의 지원이 변변치 않았음에도 이순신이 수군의 운영을 원활하게 할 수 있었던 인적·물적 지지기반이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순신과 혼맥관계인 남양홍씨 인물들은 이순신 사후 그의 업적을 기리고 추송하는 사업에 기여하였는데, 그 가운데 해암(계바위)은 임진왜란 시기 이순신이 모친을 봉양했던 효성에 대한 이야기가 얽혀있는 상징적 유적이다.

남양홍씨는 이순신 일가와 누대에 걸쳐 관계되어 있었다. 이순신의 아내 상주방씨의 외가이자 그의 사위는 홍가신의 아들 홍비였다. 홍비의 아들인 홍우기는 태당 이식이 쓴 諡狀을 가지고 金堉에게 가서 신도비문을 요청하였으며, 이 비문으로 1693년 이순신의 증손인 이광진이 충청수사로 부임하면서 이순신 묘역 입구에 비석을 건립하였다. 또한 이 비문은 『국조인물고』에 실려 편찬되었는데, 조선 후기 여러 인물지의 참고자료가 되면서 이순신 업적을 현양하였다. 이는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전승 차원에서 적지 않은 영향을 주었던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

홍우기는 해ampo 유적을 전승하는 역할을 하였는데, 해암(계바위) 근처에 이순신의 별채가 있었고 홍우기가 상속받아 살았다고 한다. 해암(계바위)은 바다와 통하는 포구에 있으며, 이순신이 모친과 소식을 주고받는 창구였다. 또한 1593년 아산의 어머니를 전라좌수영 인근인 고음천으로 모실 때 아산 해ampo에서 배를 띄워 서해안을 통해 이동하였으며, 1597년 백의종군시 모친이 고음천에서 아산으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배 위에서 사망하여 해ampo에서 모친상을 치렀던 사연이 얽힌 장소였다. 즉, 해암(계바위)은 이순신 효성의 상징이었다.

이순신의 위대한 업적은 홀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함께 활동했던 각 구성원의 면면을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본고는 그에 대한 일부로서 초계변씨와 남양홍씨의 여러 인물들의 활동을 고찰한 것이다.

이순신의 업적과 임진왜란에서 국가회복 과정을 이해하는 한 단면이 되기를
바라며, 향후 많은 사료 발굴을 통해 역사의 조각이 수집되기를 바란다.

참고문헌

사료

- 『난중일기』, 『이충무공전서』, 『壬辰狀草』, 『선조실록』, 『만전선생문집』, 『新定牙州誌』,
『潛谷遺稿』, 『국조인물고』, 『息庵先生遺稿』, 『五忠祠誌』
『草溪卞氏族譜』(1742刊,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草溪密陽卞氏大同譜』(丁卯 1987)
『國朝文科榜目』
『國朝榜目』(규장각한국학연구원[奎貴 11655])
『萬曆十一年癸未九月初三日別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한貴古朝26-28-6])
『辛卯別試文武科榜目』(국립중앙도서관[古朝26-73])
『萬曆十一年癸未九月初三日別試榜目』[국립중앙도서관, 한古朝62-28-6])
『己丑四月日增廣龍虎榜目』(국사편찬위원회[MF A지수149 1])

논문

- 김기승, 「홍가신과 임진왜란 - 충청 지역 지방관이 경험한 임진왜란 전후의 조선사회」, 『역한국인물사연구』 8, 한국인물사연구회, 2007.
김일환, 「이순신의 아산 낙향과 무과 수련과정」, 『이순신연구논총』 3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8.
김한신, 「임진전쟁기 유성룡의 군사·외교활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20.
민장원, 「정조의 ‘충신 현창사업과 이순신에 대한 기억의 재구성」, 『조선시대사학보』 89, 조선시대사학회, 2019.
방성석, 「임진왜란 극복과 온양방씨의 역할에 관한 고찰」, 『이순신연구논총』 25,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6.
신윤희, 「임진왜란중 이순신일가의 動態와 이순신의 孝義」, 『이순신연구논총』 8,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07.
신윤희, 「정조대 『李忠武公全書』 편찬과 「亂中日記」 분석」, 『충무공 이순신과 한국 해양』 4, 해군사관학교 해양연구소, 2017.

- 윤정, 「肅宗代 『忠武公家乘』 편찬의 경위와 정치적 함의 - 『李忠武公全書』의 원전에 대한 검토」, 『역사와 실학』 55, 역사실학회, 2014.
- 윤정, 「영조대 이순신 사적 현창과 후손 탁용의 정치적 함의- 무신란에 따른 이념적 대책」, 『역사민속학』 62, 한국역사민속학회, 2022.
- 이근호, 「인조 말-숙종 초 홍우원의 정치 활동」, 『한국사학보』 67, 고려사학회, 2017.
- 이근호, 「임란 이후 홍가신의 활동과 인산서원 배향」, 『한국서원학보』 15, 한국서원학회, 2022.
- 이민웅, 「충무공 이순신에 대한 몇 가지 인식문제 고찰 - 가계, 관련, 역사적 평가를 중심으로」, 『역사와 경계』 77, 부산경남사학회, 2010.
- 정진술, 「임진왜란 시기 李舜臣家 인물들의 行蹟」, 『이순신연구논총』 40,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24.
- 정진술, 「이순신을 도운 전라좌·우수영 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 23,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5.
- 제장명, 「임진왜란 시기 李舜臣 幕下人物의 활동」, 『역사와 경계』 52, 부산경남사학회, 2004.
- 제장명, 「이순신을 도운 경상우수영·충청수영 사람들」, 『이순신연구논총』 23, 순천향대학교 이순신연구소, 2015.
- 황병성, 「이순신 막하인물들의 의리론과 창의 - 호남 거주의 의병막하들을 중심으로」, 『호남학』 55, 전남대학교 호남학연구원, 2014.

단행본·디지털 자료

- 이민웅, 『이순신 평전』, 책문, 2013.
- 『임진왜란 전후 온양방씨 일문의 구국 활동』, 2013(임진왜란 431주년 온양방씨 제1회 학술대회)
- 『디지털아산문화대전』

A STUDY ON THE IMJIN WAR AND THE ACTIVITIES OF YI
SUN-SIN'S RELATIVES -FOCUSING ON THE CHOGYE BYEON
AND NAMYANG HONG CLANS-

SHIN YUNHO (SHIN, YUN HO)

Yi Sun-sin is recognized as a key figure in overcoming the Imjin War, but his achievements should also be examined alongside the contributions of those who worked around or assisted him. To this end, we looked into individuals who were either Yi Sun-sin's relatives and worked with him, or who honored him after his death. Specifically, these were members of the Chogye Byeon and Namyang Hong clans, to whom he was connected by marriage. Members of the Chogye Byeon clan actively collaborated with Yi Sun-sin, whereas the Namyang Hong clan contributed to posthumous commemorative activities.

During the Imjin War, Yi Sun-sin's close relatives among the Chogye Byeon clan were Byeon Jon-seo and Byeon Yu-heon. They were successful candidates in the military examination, well-versed in tactics, and served as officers under Yi Sun-sin. Though not as close, Byeon Sa-an, Byeon Deok-su, Byeon Hong-dal, and Byeon Hoe-bo also excelled in the military examination and were active in the navy or advanced to government positions. In particular, Byeon Hoe-bo passed the special military examination in Hansando in 1594 as the top scorer. Additionally, in 1597,

when Yi Sun-sin was serving in Baekui as an ordinary soldier and stayed in the Chogye region, many people visited him for consultations. These instances suggest that, despite limited support from the court, Yi Sun-sin had the necessary human and material support to manage naval operations effectively.

The Namyang Hong clan was connected to Yi Sun-sin's family over generations. Yi Sun-sin's wife, Sangjubang, was related to the Hong family, and his son-in-law was Hong Bi, son of Hong Ga-sin. Hong Bi's son, Hong Woo-gi, brought the posthumous writ written by Taekdang Yi Sik to Kim Yuk and requested an inscription for the ancestral monument. Based on this inscription, in 1693, Yi Sun-sin's great-grandson, Yi Gwang-jin, erected a stele at the entrance of Yi Sun-sin's tomb when he assumed the position of Chungcheong Governor. Moreover, this inscription was included in the compilation of 『Gukjo Inmulgo』.

Hong Woo-gi played a role in preserving the Haeampo site. Near Haeam (Gebawei Rock), there was a detached residence of Yi Sun-sin, which Hong Woo-gi later inherited and lived in. Haeam (Gebawei Rock) is located at a harbor connected to the sea and served as a point through which Yi Sun-sin communicated with his mother. In 1593, when escorting his mother from Asan to Goeumcheon near Jeolla Left Naval Command, Yi Sun-sin set sail from Haeampo in Asan and traveled along the west coast. In 1597, during his service as a common soldier, his mother passed away on the boat while moving from Goeumcheon to Asan, and the mourning rites for his mother were conducted at Haeampo. In other words, Haeam (Gebawei Rock) symbolized Yi Sun-sin's filial piety.

한국문화연구 49

Key Words : Imjin War, Yi Sun-sin, Chogye Byeon clan, Namyang Hong clan, Haeampo